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어버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3. 스승의 주일

다음 주일(5.18)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 : 박제연 집사, 정현숙 권사, 이광근 안수집사
청소년부 : 임명숙 집사, 임명순 사모
청년부 : 임명자 집사
구역장 : 정현숙 권사, 박제연 집사

4. 오후예배 교제

2025년 5월 18일(다음 주일)부터 주일오후예배는 "사중복음 기초신앙" 공과교제를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5. 구역예배 (날짜변경)

2025년 5월 13일(화)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다음 모임 : 정현숙 권사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

6. 북한선교위원회 정기 총회

5월 15일(목)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정기총회가 총회 본부에서 있습니다.

7. 노방전도

매주 목요일 오후 4~6시까지 교회 앞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팝콘전도, 슬러시전도, 찬양전도, 가정방문 전도)

8.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근복무), 이다남(병가), 박연대(병가), 임명순(손발목 인대수술 예정),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현숙 권사(근무력증) 정현숙 권사(근무력증), 김강준 어린이(치유와 회복, 심리적 안정) 윤라겸 집사(사업), 김주형(가정) 한효성(직장) 한인혜(직장) 정청재(만음과 구출), 이광근(홈스쿨)

9. 2025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4.4 ~ 5.5)

5/08(목)-임명자 집사(-4.11) 5/20(화)-이소은 양비 5/27(화)-문재효 형제
5/28(월)-이다남 집사(-4.30) 5/28(수)-박수진 학생 5/28(수)-이예나 양비
5/00(?) -최범준 양비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5/11 임명자 집사
- 5/18 임명숙 집사
- 5/25 김혜숙 권사
- 6/01 정현숙 권사
- 6/08 박제연 집사
- 6/15 이광근 안수집사
- 6/22 임명자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5/11	어버이주일
05/15	교회어르신 가정 위로 삼방 교단 북한선교위원회 정기총회
05/18	스승의 주일
05/25	부부주일 성결교회주일
05/29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날
06/01	첫날빛이 일삭예배(성찬예식) 여름사역을 위한 준비모임 놓아준 선교주일
06/03	산상기도회 (강남금사기도원)
06/06	산상기도회 (교동도 저어전망대)
06/08	성령강림주일(오순절) 환경선교주일

주일 사랑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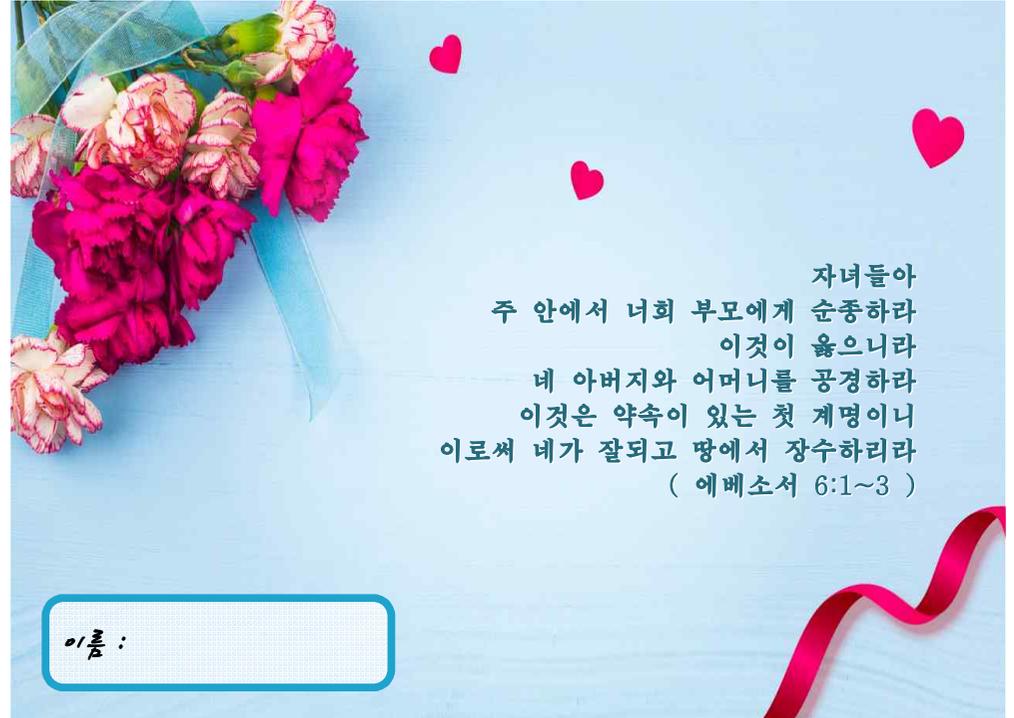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8권 19호 | 2025년 5월 11일
창립 2017.11.25 |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 어버이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이름 :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야곱의 족속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 거주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겔 20:13~14)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를 멸시하였고 나의 ()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②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뽑으신 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겔 21:19~23)

인자야 너는 ()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 갈랫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③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붙들지 못했던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주셨나요?(겔 21:24~2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이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을 제거하며 ()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④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겔 22:3~4)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15)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으로 별 다른 탈 없이 자란 아이는 초등학교도 일반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이 학생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수업시간에 쓴 글입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내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히 쏟아주시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이 글을 본 선생님은 큰 감동을 받아 익명으로 인터넷에 공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글에 감동을 입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해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가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의 일”이었습니다.

1.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것.
2.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
3.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
4.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 것.
5.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것.
6.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
7.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쭙보지도 않은 것.

부모님을 향한 작은 아쉬움과 원망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더 큰 후회와 아픔이 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때에 헤드린 조그마한 것들이, 돌아가신 후에 헤드될 수 있는 그 어떤 것 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의 기준을 “네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명령 하십니다. (שְׂמַחַת אֲבוֹתַי וְאִמֹתַי - 캅베드 에트 아비카 웨에트 임메카)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행동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며, 또 한 나를 위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늦기 전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53	아람과의 전쟁과 아합의 죽음	왕상 22:1~40
찬송가 찬 524장	다	같이	여호사밧 왕의 통치 이야기	왕상 22:41~50
대표기도	박재연 집사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의 등극	왕상 22:51~53
성경봉독 왕하 1:13~18	윤독	850	아하시야의 배변의 조짐	왕하 1:1~12
말씀인도 어떤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말은이	852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의 죽음	왕하 1:13~18
합심기도	다	같이	엘리아의 승천	왕하 2:1~14
헌금기도 찬 523장	말은이		엘리아의 사역 시작	왕하 2:15~25
주기도문	다	같이	아합의 아들 요람(여호람) 등극	왕하 3:1~12

■ 들어가는 말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위에 오른 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선지자 엘리아와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아하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 엘리아를 잡으려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오십부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셋째 오십부장은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선지자 엘리아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부하들의 목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아에게 아하시야 왕을 찾아가서, 아하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 왕은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사망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허망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까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알아야 후회 없고 만족스러운 영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세 번째 오십부장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13~14).

두 번이나 오십부장과 부하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하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신하를 보내어 선지자 엘리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십부장은 이전의 오십부장과는 달리 위협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목숨을 간청 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신하와 백성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했으며, 자신과 부하들 오십 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하시야 왕의 오만한 인생과 겸손히 자비를 구하는 오십부장의 인생의 차이는 생명과 평안으로 드러납니다. 완악한 자는 사망의 길로, 겸손한 자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롬 8:6).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경고 합니다(삼상 15:22~23).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결국 버림받는 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잠 22:4).

둘째, 선지자 엘리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용기를 내어 순종합니다(15~17)

오십부장의 겸허하고 간곡한 요청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아에게 두려워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친위대의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던 선지자 엘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요청에 따라 순종하고 아하시야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로써 자신이 세속 권력자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아하시야 왕 앞에 선 엘리아는 왕을 책망하며 ‘당신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경험함은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혀왔던 엘리아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분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아의 믿음의 선한 용기는 아하시야 왕과 오십부장들의 객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갖는 순종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 율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살전 2:4).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라고 증언합니다(롬 14:18).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권능 아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히 12:28~29).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하시야 왕의 무모함을 버리고 겸비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17~18)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아하시야 왕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 우상숭배에 빠져 무모하게 하나님께 맞서다가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죽음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전혀 회개치 않습니다. 아들도 없었기에 동생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들도 없이 죽었다는 것은 비극적이고 허망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회를 즉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함과 무모함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인생이 값지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 결론

인간은 어리석게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에 눈이 가려지면 마음이 흔들리며, 세상에 휘둘리며, 사탄의 농락에 미혹되고 맙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 성경은 허무하고 무모하게 끝나는 인생들을 경고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사 1:19~20). 아멘!